

우리로광통신 공모주 청약 대박

일반 배정 41만 7556 주 195대1 경쟁 27일 광주 광통신업체 첫 코스닥 상장

오는 27일 광주지역 광통신업체로는 처음으로 코스닥시장에 진출하는 우리로광통신(주)이 공모주 청약에서 '대박'을 터뜨렸다.

18일 우리로광통신(대표이사 김국웅)과 상장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지난 15~16일 이틀간 진행된 우리로광통신 공모주 청약에서 일반에 배정된 물량 41만7556주에 8137만740주가 접수됐다. 최종 경쟁률은 195대 1로, 청약증거금 4191억원이 몰렸다.

앞서 지난 7일 기관 청약에서도 배정 물량 146만주 모집에 4억1200만

주가 몰려 28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공모 확정가는 1만300원이며, 공모 금액(208만7777주)은 215억원 규모다. 이 자금은 시설투자과 연구개발, 차입금상환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코스닥 상장 예정일은 오는 27일이다.

우리로광통신은 지난 1998년 광주 광통신단에 설립, 국내 최초로 초소형 광분배기를 개발한 광통신분야 전문기업이다.

광분배기는 전화국 등에서 송신되는 광신호를 빌딩이나 가정 등 수요처에 분배하는 기기다. 업계 최초로 2



김국웅 회장

x64와 1x128 채널 광분배기를 개발했고, 산업 자원 부로부터 '차세대 세계 일류상품'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광다이오드(POD) 양산설비 투자를 마치고, 내년부터 광다이오드 매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광다이오드는 광신호를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장치로 기술적인 진입장벽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10년 국내 업체 인수합병(M&A)을 통해 원천기술을 확보했다.

우리로광통신은 포화상태에 달한 국내시장에서 벗어나 수출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전세계 17개국 140여개 기업에 제품을 공급하는 등 수출

이 전체 매출의 86.6%를 차지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2008년 이후 연평균 26.3%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영업이익도 연평균 60.7% 성장하고 있다. 특히 고도화를 통한 원가 관리로 경쟁사 대비 높은 이익률을 누리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 258억원, 영업이익 95억원을 기록했다. 올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86.8% 증가한 53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홍호연 우리로광통신 사장은 최근 간담회에서 "세계 1위 광분배기 기술과 생산력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광다이오드(POD)와 광센서 분야로 사업 영역을 넓혀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2015년까지 매출 1000억원, 영업이익 200억원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지난 16일 광주 센트럴호텔에서 '호남지역 천년 장수기업 희망포럼' 발족식과 함께 '글로벌 명문 중소기업을 향한 발전과제'라는 주제로 첫 포럼이 열렸다.

“기업승계 세제 혜택·정책 배려 필요”

호남지역 천년 장수기업 희망포럼...발전 과제·육성책 모색

“기업승계공제를 받으려면 기업의 전부를 1명이 상속받아야 하는데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쉽지 않다. 개선이 필요하다.”(임재문 세무사)

“기업상속공제 적용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를 100% 유지해야 하는데 급변하는 경제환경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독일과 같이 고용 유지가 아닌 급여 총계로 하는 게 합리적이다.”(김재진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원)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 본부와 한국기업승계기업협회 주최로 지난 16일 광주 센트럴호텔에서 '호남지역 천년 장수기업 희망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은 '글로벌 명문 중소기업을 향한 발전 과제'를 주제로 현행 기업승계 제도 및 세제에 대한 정책방향과

개선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주제발표를 한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기업상속 공제를 여러 명이 공동소유해 경영에 공동사업체제로 참여하거나, 이 중 1명이 대표자로 기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범 군서씨앤씨 대표와 옥정범 (주)라비 대표는 “상속세 감면은 2세대 경영인 입장에서 매우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자금조달이나 보증제도, 조달청 입찰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영용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는 “높은 세율은 조세 회피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라는 폐해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근 회계사는 “공제를 받았더라도 이후 10년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며 “사후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승제 조선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업승계는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경영을 물려주는 것”이라며 “기업인들이 먼저 자부심을 갖고 부의 대물림이 아닌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한 사회발전이라는 사회적 여운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호남지역 천년 장수기업 희망포럼'은 지역 중소기업의 기업승계를 통한 장수기업으로 성장·발전을 모색하고, 경영 1·2세대 간 네트워크 구축·정보 교류를 위해 이날 출범했다. 공동대표에는 정찬구 프로맥 회장(1세대 대표)과 김상범 군서씨앤씨 대표(2세대 대표), 조승제 조선대 교수(정책위원 대표)가 선정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은행들 사회공헌비 '씩둑'

수익 줄자 최근 3년간 60% 줄어

호황기 때 '돈 잔치'를 벌인 은행권이 수익이 줄어들자 사회공헌비부터 대폭 삭감했다.

이 때문에 독과점 지위를 활용해 막대한 예대마진(대출이자-예금이자)을 늘린 은행들이 '탐욕 관행'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은행들은 잘 나갈 때 배당액과 급여를 대폭 올렸다가 경제가 어렵고 자금 사정이 급해지면 국민혈세에 의존하는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 탓에 여론의 질타가 끊이지 않았다.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국민·하나·외환 등 시중은행 4곳의 올해 사회공헌활동비 예상 액수는 2317억원이다. 2009년 5554억원의 41% 수준이다.

우리은행의 사회공헌활동비는 2009년 1765억원에서 2010년 699억원, 지난해 578억원으로 각각 급감했다. 올해 예상 액수는 61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올랐다.

국민은행은 2009년 1317억원에서 2010년 628억원, 지난해 858억원, 올해 예상 액수 850억원 등이다. /연합뉴스

하나·외환은행도 2009년 2864억원에서 2010년 856억원, 지난해 881억원, 올해 예상 액수 857억원으로 내려왔다. 올해 예상 액수를 아직 산정하지 못한 신한은행도 지난해까지 사회공헌활동비가 감소 추세를 보였다.

신한은행은 2009년 1765억원을 사회공헌 활동에 썼지만 2010년 947억원, 지난해 673억원으로 액수를 줄였다.

시중은행이 사회공헌활동비를 줄인 것은 저금리 기조와 예대금리차 축소로 수익성이 나빠졌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 예대금리차는 올해 3분기 2.75%까지 좁혀졌다. 사회공헌활동비를 대폭 줄인 은행권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

성장이 잠시 주춤했다는 이유로 사회공헌비부터 줄인 것은 수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해 고질적인 병폐가 재현된 꼴이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삼성 갤럭시노트 10.1 LTE 출시 삼성전자는 오는 19일 초고속 LTE 통신과 신규 기능으로 업그레이드된 '갤럭시노트 10.1 LTE'를 국내 이동통신 3사를 통해 순차적으로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광주본부장 박봉주씨 당선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새 지도부에 통합진보당을 지지하는 박봉주 후보가 당선됐다.

18일 민주노총 광주본부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제3기 지도부 선거 결과, 기호 2번 박봉주(본부장 후보·기아차)·박영수(수석본부장 후보·금호타이어)·고미경(사무처장 후보·지력금융지회) 후보

가 유효투표 2만304표 중 1만2139표(59.79%)를 획득해 당선됐다.

진보신당과 진보정의당 등의 연합 후보 측인 기호 1번 이기근(본부장 후보·기아차) 후보 측은 6940표(34.18%)를 득표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 3기 지도부의 임기는 오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금감원 “부실기업 상시 구조조정”

“신용위험 수시로 평가”

내년부터 부실 징후를 보이는 기업에 대한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이 강화된다.

금융위기 이후 해마다 정기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졌지만, 기업의 자금 사정이 갈수록 나빠지자 수시로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할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중은행 여신 담당 임원들과 회의를 열어 이러한 방향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정기적인 신용위험 평가 기간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신용위험을 평가해 지체없이 기업 구조조정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금까지 채권단은 매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뉜 한 차례씩 정기 신용위험 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구조조정 대상을 정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례행사처럼 구조조정을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마다 수시로 구조조정하는 데 주력해야 할 만큼 상황이 급박해졌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내부적으로 '기업 부실 확대 대응방안'을 마련, 선제적인 신용위험 평가와 상시 구조조정 등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실제로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지난해 상반기 18.6%에서 올해 9.7%로 거의 반 토막 났다. 매출액 순이익률도 같은 기간 6.3%에서 4.5%로 주

저앉았다.

금감원은 이번 주부터 신용평가사와 함께 4개 점검반을 꾸려 채권단이 엄밀하게 기업 신용위험을 평가했는지 점검한다. /연합뉴스

로또복권 (제520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4	22	27	28	38	40	1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2,167,205,438	6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58,573,120	37
3	5개 숫자 일치					1,332,026	1,627
4	4개 숫자 일치					50,000	77,196
5	3개 숫자 일치					5,000	1,260,891



www.hwasun.go.kr



Therapy 화순
군민이 행복한 풍요로운 복지화순

깨끗한 자연, 천년의 숨결
자연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녹색 명품도시 화순

전남 화순으로 오세요